

# 고사리들이 연주해낸 아름다운 화음

### 보장초교 리듬밴드부 창단식 가져 지역 노인 모시고 경로잔치도 벌여

지난 7일 청수면에 위치한, 전 교생이 60명밖에 되지 않는 작은 시골마을의 보장초등학교(교장 강호진)에서 아주 뜻깊은 행사가 펼쳐졌다.

바로 보장초교 리듬밴드부 창단식과 어버이날을 맞아 경로잔치가 함께 열린 것. 특히·적성 교육의 일환으로 창단된 리듬밴드부는 지난 2월 이근도 교사를 지도교사로 선임하고 악기를 구입한 뒤 밴드부원에 응시한 학생 16명과 함께 3월부터 본격적인 연습을 시작했다.

지난 4월에는 졸업생 운동원씨가 전자기타 2개 등의 악기를 기증하기도 했다.

이날 강호진 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작은 학교이나 학부모, 교사, 학생 모두 합심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오늘 행사처럼 앞으로 또 어르신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려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구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포천교육청 이용희 학무과장과 이철우 국회의원 당선자 등의 축사 등이 낭독됐다.

또 하나 빼 놓을 수 없는 것은 리듬밴드부의 연주. 유려한 솜씨는 아니지만 고사리 같은 손으로 하나 하나의 악기를 연주해 만들어내는 순수한 음악에 이날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의



박수가 이어졌다.

리듬밴드부 창단식이 끝난 후에는 본격적으로 보장초교 학교 운영위원회(위원장 이주환) 주관의 경로잔치가 오가리와 운산리 노인 5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렸다.

한편, 보장초교는 평생교육으

로 학부모와 교직원 11명을 대상으로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두 시간 동안 리듬밴드를 가르치고 있으며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자세한 문외는 533-0101로 하면 된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가산초교 학부모회 바자회

### 수익금 학급문집 발행 등 학생들을 위해 사용

가산초등학교 학부모회(회장 이은미)는 지난 7일 오전10시부터 오후11시까지 학교 운동장에서 알뜰 바자회를 열었다.

이날 알뜰바자회에서는 의류와 신발, 양말, 침구, 밀폐용기 등 생활용품과 먹거리, 운동기구 등 다양한 품목을 합한 축은 직접구입해 전시, 판매했다.

협찬은 지역업체가, 판매는 학부모회 회원 60여명이 직접 나섰다.

이상만 경기도의원과 김영오 포천시의회의원 등 지역 인사들도 참가해 학생들을 위한 바자회를 돕기도 했다. 올해로 7년째 계속되는 바자회를 통하여 얻은 수익금은 학생들을 위한 학교시설과 학급문집 등을 발행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된다.

바자회 마지막 행사로는 노래자랑도 개최해 지역주민들의 화합의 한마당 잔치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바자회를 준비한 이은미 학부모회장은 "여러 학부모님들과 함께 마련한 바자회는 학생들을 위해 다소나마 도움이 되고 학교발전에도 도움이 되며 지역 주민들의 화합의 장 마련이라는 일석삼조의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많은 도움을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바자회는 가산초등학교 체육진흥회(회장 이훈구)와 가산초등학교 운영위원회(회장 황병철)



와 스카우트(회장 이명희)가 공동으로 개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날 바자회에서 얻은 수익금 전액은 학생들을 위해 쓰일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hitel.net

# 수필가 김창종의 현대시 감상(64)

## 박애경 '월출(月出)'

낮도 밤도 잃은  
길 없는 도시를 떠났다

칠혹이  
오염된 대지를 덮으며  
신성함을 품은 밤

검은 후광이  
대지의 육중함 위에서  
정조를 보인다

아아  
매문지 않은 탄생!  
정적(靜寂)이 안에서 안으로  
곧두박질 치며 뛰어온다

이제  
은 세상의  
들과 호수에 산과 바다에  
홀연히 나타나  
전설을 남길 것이다

-2001년 여름 원문 갯가에서-  
'볼 여름 가을 겨울' 글사랑 문인선집 3집에서)

감상=해설  
일출(日出)과 낙조(落照)를 보고도 우주의 신비와 인생의 환희, 무상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과는 인생을 말하지 말라는 말이 있다.

그 만큼 일출과 낙조를 바라보며 가슴 뜨거운 인생의 원초적 심성(心性)을 인생의 행로의 철학적 의미로 느끼게 된다는 얘기가 된다.

공해에 찌들어 굉음(轟音) 속 노예가 되어 그저 노예의 의무만을 삶의 전부인 듯 생각하는 도시민들의 도시 탈출은 환희와 자유 그 자체이다.

암흑에서 정렬의 태양을 맞는 신성한 역작을 평범한 시어로 표현하려는 노력이 초기 문단 여행기의 기억 너머를 대하는 듯 청초하고 정순하여 재미있다.

창조적 의미의 일출의 위대함으로 노래한 박애경님의 마음자리가 아름답다.

이화여대 교육대학원을 졸업하고 제47회 '월간 아동문학' 신인상을 수상하고 문단에 데뷔하였다. 한국문인협회 회원이며 현 서울 우이초등학교 부장교사인 남은 늘 청초하고도 순수미의 시를 써서 이웃을 즐겁게 하고 있다.

현 한국글사랑문화회 회원이며 아동문학회 회원으로 문단 원로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어린이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고 있는 중진 교육자이자 교단문인이기도 하다.

✉ 필자 연락처 02)832-2434

# 우리 학교 최고

## 청성초등학교 편

# 스크린 속 감동을 교육으로

작은 시골마을에서 벌어진 영화와 영상기술을 동경하는 한 소년과 영상기술자와의 우정을 그린 '시네마천국'이라는 영화가 있다.

여기서 보여주듯 돌아가는 필름들이 스크린에 비추는 영상은 어린 아이들의 감성에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마련이다.

### # 영화감상의 날

극장 하나 없는 포천에서 포랑포랑한 눈망울의 초등학생들이 매주 수요일 대형 전동 스크린에 그려지는 꿈과 상상의 세계에 빠져든다.

무슨 이야기냐고 의아해하는 분들은 수요일 군내면에 위치한 청성초등학교에 가보시면 연유를 알게 된다.

청성초교는 지난해 3월부터 애니메이션이나 전체시청가 등급의 유명영화들을 선정해 한 달에 4편씩 교내에서 상영하고 있다. 오전에 수업이 모두 마치는 날 상영하기에 보고 싶은 아이들은 모두 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학부모들도 자유롭게 참여해 감상토록 하고 있다.

영화 감상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는 상영 후 아이들의 일기장을 보면 알 수 있다. 영화를 보고 '앞으로는 부모님께 잘 해드려야겠다' 등 느낌 점과 각오 등을 적은 내용을 보면 정서함양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금방 알 수 있는 사실.

청성초교 윤자성 교장은 '아이들의 호기심이 더욱 커지고 여럿이 함께 어울려 보면서 공동체 의식도 높아진다'고 말했다.



▲ 영화를 관람하고 있는 아이들

또 청성초교는 영화가 상영된 후 아이들과 함께 영화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더욱 뜻 깊은 시간을 만들고 있다.

### # 창의력을 키우자

청성초교가 가장 중점을 두고 추진하는 교육목표는 바로 '창의력 계발'.

격주마다 학생들에게 창의력 계발을 위한 과제를 부여해준다. 예를 들어 선 하나를 그리고 그것을 마음대로 완성시켜보라든지 하나의 이야기를 제시해준 후 만약 내가 주인공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등이다.

또 나머지 격주에는 '아름다운 동시'라는 제목으로 아이들에게 동시를 선정해준 후 암송하게 하고 있다. 이를 통해 2학년 때는 동시암송대회와 같은 일정한 테스트를 통해 시상한다는 계획도 세우고 있다.

이밖에도 청성초교는 자랑할거리가 많다. 올해부터 실시할 계획인 원어인 교육도 그중 하나. 다른 학교와 달리 기숙사를 제공해 안정적인 생활기반을 마련해주는 등 학생과 교사 모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졸업하는 모든 아이들에게 상장과 장학금을 지급하고 어린이날에도 전 교생에게 각자의 특성에 맞는 상장을 지급하는 등 사랑으로 모든 아이들을 감싸안고 있다.

문지연 기자 soma7000@naver.com



▲ 청성초교 전경

# 운동성의 미국어 따라하기

● get  
'갯'이란 이 단어는 '얻다'라는 뜻 외에도 변화무쌍한 요술쟁이처럼 다른 단어들과 결합하여 일상 대화 속을 휘젓고 다니면서 뜻을 달리하며 혼란을 야기하지만 가장 매력적인 주인공이기도 하다.

7. 저 음악 어때, 좋아해?  
How about that music, do you like it?  
하러뵈뵈뵈, 두유라이기?

★ 더뮤직이스 퀴얼리게스미

The music really gets me.

8. 가끔 전화 해도 되지요?  
Can I call you sometime?  
캐니얼쥘쥘타임?

★ 언제든 하세요  
You can always get me(on the phone)  
유캔얼웨이즈갯미(온더폰)

☎ 문의: 윤종성 (017-723-4977) coolyoon@nate.com



# Family Resort 푸른언덕(구 신한연수원)이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여유롭고 편안한 야외결혼식장 완비※



그동안 잊고 지냈던 주위에 소중한 분들을 모시는 공간으로 뜻깊은 시간을 가져보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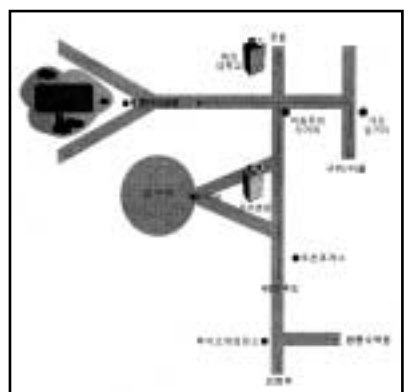
음악과 웃음, 가족간의 따뜻한 사랑이 있는 푸른언덕으로 가족여러분을 초대합니다.

### ◆ 시설이용안내

- 식당 (한식·양식 실외)
- 산책로
- 운동장
- 야외수영장
- 나루터
- 정자
- 야외토론장
- 연못



푸른언덕 식당 전경



회강잔치·돌잔치·한정식·왕갈비·석쇠장어구이·송어회·바베큐·뷔페

주소: 경기도 포천시 동교동 75-11//예약문의: 031)541-0184, 016-703-6522// 상무: 편경자